

# 고창 영산기맥 생태축 복원사업 착수

### 고창군 솔재삼터서 기공식

### 도로개설 단절된 생태계 연결

### 50억원 들여 생태길·터널 개설

도로개설로 단절·훼손된 고창 영산기맥(솔재) 생태계 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고창군은 최근 고창읍 월산리 솔재삼터에서 '고창 영산기맥 솔재 생태축 복원사업 기공식'을 개최하고 복원사업에 착수했다.

기공식에는 유기상 고창군수, 최인규 고창군의 회 의장, 성경찬 전남도위원을 비롯해 생태환경보 전협의회, 운곡습지생태관광협의회, 기후환경네

트워크 등 환경단체와 유관 기관·단체 관계자,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영산기맥 솔재 생태축 복원사업'은 자생 동·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통한 산림지역 생물다양성 확보와 생물학적 수용능력 강화로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복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전북 유일한 기맥(영산기맥)의 상징성·역사성을 회복하는 의미도 크다. 영산기맥은 호남정맥(내장산-백암산)에서 갈라져 나와 고창 양고살재·솔재를 지나 영광, 목포 유달산에 이르는 총길이 160km의 전라북도 유일한 기맥(岐脈)이다.

고창 솔재 구간에 총사업비 50억원(국비 35억원)을 투입해 상부(생태통로)는 길 70m, 폭 30m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도록 이동공간이 분

리된 생태통로를 만든다.

하부(도로부)에는 길이 50m, 폭 15m의 터널을 만들어 차량통행과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 솔재는 전라북도 유일한 기맥(영산기맥)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되살리는 '높을 고창'의 대표장소가 될 것이다"며 "친환경적으로 주변 생태계가 복원돼 생태축 복원사업 대표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영산기맥 솔재(방장산~문수사) 구간은 지방도로 898호선을 만들면서 수년간 끊어져 왔다. 야생동물 로드킬 등이 자주 발생하는 등 방장산, 문수사 일대를 탐방하는 탐방객 안전도 함께 위협받고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순창 실랜드 내 방갈로.

## 순창군, 실랜드 황토방갈로 23일부터 개방

### 4명·6명 수용 15개 객실 갖춰

순창군이 치유와 휴식을 위해 구축한 실랜드 내 황토방갈로를 23일부터 본격적으로 개방한다.

황토방갈로는 1단지 7동과 2단지 8동 등 총 15동으로, 4명까지 수용 가능한 A형 11객실(30.24㎡)과 6명까지 수용 가능한 B형 4객실(38.16㎡)로 구성돼 있다.

방갈로 안에는 에어컨, TV,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취사·조리기구 등 다양한 물품이 구비되어 있다.

이용요금은 성수기(5~10월) 기준 평일 A형 12만원·B형 13만원, 주말 A형 14만원·B형 15만원이다.

또 비수기의 경우 평일 A형 7만원·B형 8만원, 주말 A형 9만원·B형 10만원이며, 순창군민은 비수기에 2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실랜드가 전국적인 교육·연수의 공간이다 보니 숙박교육생 우선으로 운영되며, 비어있는 방갈로에 한해 일반인에게 개방될 예정이다.

이용 예약은 실랜드 방갈로 전용 홈페이지(www.실랜드.com)를 통해 3일전까지 사전 예약이 가능하며, 온라인 카드결제 및 계좌이체가 가능토록 예약시스템도 갖췄고 있다.

실랜드 내에는 방갈로 외에도 숲속 산책로와 실카페, 건강장수체험과학관, 치유정원 등이 조성돼 있다.

황주주 순창군수는 "방갈로는 건립 시 황토 흙벽시공으로 화학제품 단열제 등을 일체 사용하지 않아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순환시켜 주기 때문에 취침 시 머리를 맑게 해주는 것이 장점"이라며 "물 맑고 공기 좋은 순창에서 치유와 힐링을 체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장영근 기자 jyg@kwangju.co.kr



지난 20일 고창읍 월산리 솔재삼터에서 열린 '고창 영산기맥 솔재 생태축 복원사업 기공식'에서 유기상 고창군수 등 참가자들이 시삽을 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 남원시 공공 배달앱 '월매요' 내달 말 출시...가맹점 모집

### 이용수수료 없고 소비자 10% 할인

남원시가 공공 배달 앱 '월매요'를 이르면 다음 달 말 출시할 예정이다.

월매요는 민간의 음식 배달 앱과 달리 가맹점들이 이용 수수료와 광고료를 한 푼도 낼 필요가 없다.

소비자는 남원사랑 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어

10% 할인을 받는 효과가 있다.

시는 이와 별도로 주문 1건당 1000원의 포인트도 적립해 준다.

월매요는 음식을 조리해 배달할 수 있는 도심의 외식 업소를 가맹점으로 우선 모집하며 꽃집, 정육점 등으로 점차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민간 배달 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초부터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

배달 앱을 개발해 왔다.

이완주 남원시장은 "월매요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광고료와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고 시민의 기본 생활비를 아껴주는 효과가 있다"며 "소도시 자치단체가 살아남는 길은 시민이 하나로 뭉쳐 지역 내 순환 경제를 만드는 것인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률 71.4%

### 각종 혜택에 대규모 투자 줄이어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며 지역 경제 활성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익산시에 따르면 8월 기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동지를 둔 기업은 전체 106곳, 분양공고 대비 분양률은 71.4%에 달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에는 풀무원 김치 수출공장,

김 수출공장 SCDD, 순수분 등 국내 식품업체들이 입주하고 건강기능식품 프롬바이옴을 비롯해 프레스지, 프레스고도 공장이 가동 중이다.

최근 냉동식품기업인 천일식품(주)과 건강기능식품기업 K스마트코리아(주)가 8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기도 했다.

현재 분양 계약까지 완료한 106곳의 기업 가운데 53개 업체가 공장을 준공하고 정상 가동하고

있다. 17곳은 착공에 돌입한 상태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국내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지난 17일에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익산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입주하는 기업에게 법인·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업체들을 위한 8개 기업지원 시설들이 집적화되면서 유통부터 마케팅, 판로 확보까지 맞춤형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 군산시, 시내·전세버스 운전자 소득안정자금

군산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내버스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정부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이 사업은 버스 운수종사자 1인당 8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시내버스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노선버스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이고, 전세버스도 법인에 소속된 운수종사자다. 모두 2021년 6월13일 이전에 입사해 2022년 8월

13일 현재(사업공고일)까지 근무자다.

신청은 시내버스의 경우 소속 법인은 23일부터 27일까지, 기사가 신청하는 경우 23일부터 9월3일까지다. 전세버스는 23일부터 9월2일까지 군산시 교통행정과로 하면 된다.

시정원 군산시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소득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종사자들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 정읍 내장산 무단출입·임산물 채취 단속

정읍 내장산국립공원이 공원내 비법정탐방로 무단출입과 임산물 채취 등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공원사무소는 무더위가 수그러들고 날씨가 시원해지면서 탐방객 급증으로 불법·무질서 행위 증가가 예상된다며 오는 9월말까지 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비법정탐방로(샛길) 출입과 버섯 및 야생식물 등 임산물 채취, 반려견 동반입장·산행 등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장산을 찾는 탐방객들은 공원 홈페이지나 공원사무소 문의를 통해 단속 내용과 불법 또는 금지행위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좋다.

최관수 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은 야외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이나 탐방객이 집중되는 지역이므로 공원방문시 사회적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이제는 내일에 투자합니다!

**최소금액 500만원 투자로  
안정적인 재테크**

**내일을 위한 보험! 안정적인 고수의 투자!  
투자만으로 수목장 자연장지를 선분양**

**은행이자**

갈수록 떨어지는 금리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시대  
평균 31~51만원

**부동산 투자**

수요와 공급의 역전  
텅텅 비어버린 부동산들  
평균 30~50만원  
(임대되었을시)

**친환경장묘문화(주)투자**

안전성 보장  
실제 운영하는 수목장의  
장원장지를 분양도 받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미래형 재테크

**친환경장묘문화(주) ☎ 062) 412-2800**